



농식품분야 영향 최소화 위해 미국 신(新)정부 정책동향 파악 등 대응체계 가동 중

<보도 주요내용>

2월 3일(월) 파이낸셜뉴스 「美·中서 설자리 줄어들다... ‘수출 효자’ K푸드도 긴장」, 아주경제 「K-푸드·뷰티도 흥행 찬물... 돌파구 마련 분주」, 한국경제 「다음 타킷은 韓... 미국 에너지·농산물 구매 늘려 대응을」 기사에서 “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.”, “현지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.”, “한국, 일본, 유럽이 다음 타킷이 될 수 있다.”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현재로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

우리 정부는 미국 현지에 파견된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주재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신행정부의 농업분야 통상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또한, 「농식품분야 태스크포스(T/F)」를 운영하여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우리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도 농업계, 식품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다만, 우리 농식품 수출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보도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	책임자	과 장	하종수 (044-201-2061)
		담당자	사무관	왕희대 (044-201-2092)